

영·호남 '문화 연결고리' 만든다



칠석! 하늘 문이 열리는 날 전통문화관, 내일 판소리 등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칠월칠석을 맞아 2일 오후 3시 '칠석! 하늘 문이 열리는 날 동편 서편'을 선보인다.

설화 '견우직녀'를 모티브로 한 이날 공연은 사랑·놀이·이별·만남·축제 등 5가지 레퍼토리로 판소리 입체창 '사랑가', 전통무용 '사랑무', 판소리 '이별대목', 단막창극 '아사상봉막' 등을 보여 준다.

(사)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 최상진 회장이 예술감독을 맡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과 전통무용인 18명이 출연한다.

한편 전통 문화관은 8월 한달간 '두리동실 어화중네'를 주제로 토요상설공연을 이어간다. 9일 '무릎에서 무릎춤사위', 16일 '춤, 국악을 품다-新춘향전', 23일 서봉 전국 청소년 실비 국악대제전 축하공연, 30일 하선영의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즐기자! 광주 인디 음악 '세븐 어클락' 6팀 내일 보헤미안서

'광주 인디 음악을 즐겨라!' 광주 인디 밴드 멤버들로 구성된 공연 기획팀 '세븐 어클락(7o'clock)'이 2일 오후 7시 인디밴드 합동 공연을 마련했다.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 문화전당역 인근(밀러타임 지하)에 문을 연 감성문화공간 '보헤미안'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밴드 6팀이 출연한다. 무대에 오르는 팀은 '별이삼우물정'(어쿠스틱), '영글순'(어쿠스틱), '버커'(코어팝), '몽키피파르렛'(팝펑크), '인저드블러썸'(하드코어), '세버다이어'(코어)다.

페이스북(www.facebook.com/7oclockjg)에 접속하면 '7o'clock'의 다양한 공연정보와 참여 아티스트들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번 공연 관람자를 위해서 푸짐한 선물도 마련돼 있다. 풋마트신발 교환권, 트리플엑스의 스탬배, 광주 악기전문점 유즈드기타 통기타, Go실용음악학원 기타수강권을 제공하며, 당일 공연 티켓을 제시하면 2M라운지, So purple에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416-1006.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와 부산에서 활동하는 대안공간이 영·호남 문화를 함께 고민하고 미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잡지를 펴낸다.

이 잡지는 두 지역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있는 문화공간과 미술공간 등에 무료로 배포돼 두 지역의 미술을 알린다.

광주 대안공간 '미테-우그로'(사진)와 부산 대안공간 '공간힘'은 4일 비평이 있는 문화예술 계간지 'POST' 1호를 발행한다.

POST에는 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점 등이 소개된다. 잡지는 매회 광주와 부산의 공통 문제를 다루는 '특집'과 두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소개하는 '전시combat', 작가들의 창작에 대해 다루는 '열전hot-war', 작가가 바라보는 예술 세계를 다루는 '악전고투: 예술가가 바라 본 세계',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잡+지' 등 코너로 구성된다. 광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와 디렉터, 기자, 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POST는 100 페이지 분량으로 1000부가 발행된다.

미테-우그로와 공간힘은 올 초 5개 도시 교류전을 진행하면서 POST를 기획했다. 비엔날레 등 두 도시가 비슷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고, 또 겪고 있는 문제가 같기 때문이었다. 특히 문화가 서울 등 수도권과 유럽 중심에서만 이야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지역 중심의 문화를 꽃피워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매거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두 공간의 설명이다.

1호 특집은 '비엔날레'다. '생존과 파국-거주하기와 불태우기'를 주제로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의 문제점과 나아가 방향 등에 대해 다뤘다. 공간힘 디렉터 김만석씨

가 주제 원고를 썼다.

이명훈 예술공간 돈키호테 큐레이터의 '광주비엔날레 20년, 이제 그만 해도 좋지 아니한가?', 박경섭 전남대 인류학과 강사의 '천상의 비엔날레, 지상의 예술', 김윤하씨의 '비엔날레의 인터넷도가 갖는 효율성', 김영희 큐레이터의 '뜻밖이지 않은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강선화 미술평론가(자생적 비엔날레 파국적 미래), 신양희 경향아티스트 기자(비엔날레와 민주주의적 예술제도의 현재성), 조선령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경제성의 정치학, 비엔날레의 미학)는 부산비엔날레를 점검했다.

특히 이명훈 큐레이터는 "광주비엔날레는 차츰 '그들의 개인'으로 전락했다"고 비엔날레를 꼬집었고, 박경섭 강사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과 등을 인정하면서도 "광주비엔날레는 공공성은 취약해지고 국제성과 지역성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에 있으면서도 광주에 이질적인 공간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잡+지' 코너에서 매회 연재되는 광주와 부산의 시장 풍경에 관한 에세이도 눈길을 끈다. 김수정 공간힘 코디네이터는 "팔도를 만날 수 있는 생선구이"를 주제로 부산의 시장을 소개하고, 김탁현 미테-우그로 매니저는 '대인시장은 맛있다'를 주제로 대인시장을 살폈다.

조승기 미테-우그로 디렉터는 "최근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 각종 SNS가 난무하는 가운데 무슨 잡지를 만드느냐는 말들도 있지만 이번 잡지를 통해 두 도시의 미술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비엔날레 이후에는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을 비롯해 '미술'을 구조화하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부산 대안공간 '미테-우그로'-'공간힘' 문에 계간지 'POST' 발행

작가·디렉터·기자·교수 등 편집위원 참여
창간호, 비엔날레 특집·시장 에세이 등 담아

산자·죽은 자 위로 공연 국립남도국악원, 1~2일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은 1~2일 오후 7시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 무대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위한 해원(解冤)'을 주제로 여름기획공연을 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원 개원 10주년 기념과 함께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1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의 '기약함주 씻김'을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의 '남해안별신굿 중 군웅 굿부터 용선놀이', 해남 오구굿 보존회의

'해남 오구굿~재석굿'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2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 별신굿 보존회의 '동해안별신굿 중 초망자굿~세존굿',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보존회의 '진도씻김굿 중 남도삼현~길뒹뒹'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한편 1~2일 오후 6시20분 진도읍사무소를 출발 국립남도국악원을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문의 061-540-40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흘러가다 2'

골목길 추억, 기억 속에서 흘러가다

로터스갤러리, 10일까지 노여운전

작가는 어린시절 골목길이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다. 그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후에도 작가는 그곳을 자주 찾았다. 그곳은 이제 재개발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작가의 화폭에는 그 정겨운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오는 10일까지 노여운씨를 초대해 제2회 신인작가 릴레이 기획전 5번째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 주제는 '흘러가다'.

작품에는 작가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

는 골목길이라는 공간이 담겨 있다. 또 그곳에서 개인의 삶과 변화의 과정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파스텔톤으로 따뜻하게 그려진 작품에서는 사람들의 진솔한 인생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파스함과 그림용, 슬픔, 추억 등 감정들이 묻어난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노씨의 세번째 개인전이다. 노씨는 제25회 무등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등에서 열린 전시에도 참여했다.

문의 062-383-01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좋아하는 해외 작가 투표하세요

에스24, 20일까지 온라인 투표

무라카미 하루키? 조지 오웰? 찰스 디킨스? 한국 독자들이 좋아하는 해외 작가는 누구일까.

에스24는 오는 20일까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세계의 작가, 세계의 문학'을 뽑는 네티즌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오늘을 사는 작가'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을 펴낸 '불멸의 고전 작가', '데미엘 최고의 작품'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

어 진행된다.

후보에 오른 작가와 작품은 지난 10년 에스24 판매 데이터와 출판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선별했다. 르 클레지오, 무라카미 하루키와 로맹 가리, 조지 오웰, 찰스 디킨스 등 부문별 54명씩 후보를 선정했다.

에스24는 투표에 참여한 독자들의 댓글을 받아 100명의 독자(50명 추천, 동반 1인)를 무료로 선정, 파주 가을 문학캠프(9월13~14일)에 초청할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제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옥상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